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아파트 내·외부 및 근린환경 선호에 관한 연구 - 대전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eferences for Apartment Interiors, Exterior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for a Family 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 Focused on Apartment Dwellers in Daejeon City-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교 수 이 해 욱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

Professor Cha, Sung-Lan

Dept. of Architecture, Woosong Univ.

Professor Lee, Hae-Wook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Since 2008, a communal child care and 'Family Pumasi' program have been conducted as a pilot project for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se programs have been positioned as a step toward a family friendly community project. For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 family friendly community project is an essential program as a part of the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ountry's low fertility. However, the people in charge face difficulties, because they do not have much experience in

* 주저자, 교신저자: 차성란 (slcha@dju.kr)

such projects.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references regarding interior and exterior apartment space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how to better implement a family friendly community program.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418 housewives who are apartment dwellers in Daejeon c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son in charge must consider child care facilities, culture, and sports centers in order to start building a community lifestyle. Second, people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education and short terms of residence are more deeply motivated by community lifestyle compared to others. Third, families with their first young child showed much interest in communal child care facilities. If the people in charge can motivate and encourage such residents to be engaged in family friendly community projects, the project will effectively progress.

Key Words : 가족친화마을(Family-Friendly Community), 살기좋은 마을만들기(livable community building), 근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 문제제기

지난 2008년 전국 10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동육아품앗이 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후 전국의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센터는 육아품앗이를 육아품 뿐만 아니라 일상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품까지 상호 교환하는 가족품앗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제 가족품앗이 사업은 가족친화환경조성이라는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상의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 사업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필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사업은 이웃들간의 품의 교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이웃사촌한가족 사업과 함께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로 나아가기 위한 전(前)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센터에서 가족친화문화조성 영역의 담당자는 가족친화마을조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을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은 행정력이나 정부의 예산지원만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동일한 마을만들기 사업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경우, 소수의 지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거나 단기적, 일회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시작은 했으나 지속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경우 2007년도에는 전체 사례의 1/5, 2008년도에는 1/3 정도만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중진, 송승현, 2010:297).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마을만들어가기’가 추진되려면, 사업운영의 조직화, 체계화, 적극적 공공지원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업의 지속성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위해 자율적,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적 방식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마을이 조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자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가족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많은 경우, 사업의 시작은 전문적인 지원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원기관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마을만들기 활동에 리더 또는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려는 크고 작은 공식, 비공식의 조직체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론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직접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제안하기,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나무심기, 공부방, 체험 프로그램, 주민교육, 마을축제 등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차성란, 2010 c:88-89).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리적 여건,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관악구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악주민연대는 3박 4일의 농촌체험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정작 임대아파트에서는 신청자가 없어 일반아파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성 프로그램, 지역을 벗어나는 활동,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파악하였다(강인남, 2004:120)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의 지원기관에서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마을만들기와 같은 지역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의 특성 및 지역특성 등을 포함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족친화마을만들기 관련 연구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차성란, 2010 b; 김선기, 이소영, 2007; 홍승아, 김혜영, 류연규, 소마나오코, 조순주, 진미정, 2007; 행정자치부, 2006),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차성란, 2010 c), 가족친화마을 사례연구(김선미, 김소영, 2010) 정도이며,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외부기관들이 사업 시작단계에서 어떤 특성을 지닌 가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내 어떤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을 동기화시키고자 할 때, 가족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좀 더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파트단지 계획 수립단계에서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에 유리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친화마을환경 사업의 배경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조성은 정책적 차원에

서 사업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가족정책에서의 방향 전환이다. 과거 가족이 전담하던 가족돌봄을 이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돌봄의 사회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최초의 명시적 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6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가족정책인프라확충이다. 물론 가족친화마을환경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과제의 하위영역에 포함되지만, 이는 좀 더 기본적으로 가족돌봄의 사회화라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사업 과제이다. 2011년도에 확정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자녀돌봄지원강화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저출산시대에 개별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가족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관주도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시스템에서 주민주도의 자립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로 방향전환 흐름이다. 과거 정부는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의 원칙 결정, 서비스의 직접제공 등 일방적, 수직적 행정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여 서비스 공급의 내용이나 실천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족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인 서비스 공급 원칙을 결정하고 서비스 현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주민들 스스로 가족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원자, 네트워크,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복지예산, 지역사회복지 요구의 다양성이라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차성란, 2010 c; 78).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요구는 행정담당자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사업참여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지역주민들이 가족친화마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 준다.

2.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구성요소

우선 가족친화마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송지, 김혜장, 이경란, 광영선, 정영화(2009:18)는 가족친화마을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정의하였다. 자녀보육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어른들도 거주하기에 쾌적한 지역사회로 개념화하고 있다.

차성란(2010 b)은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이라 정의하여 가족친화마을은 지역사회라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관계망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였다. 홍승아 외(2007)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가족의 책임수행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의 수행과 가족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라 하여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가족친화마을은 행정자치부가 중심부처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9개 모델 중 ‘가족형’ 모델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2006)는 거주환경, 근로환경, 여가환경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살기좋은 지역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환경영역에서 거주환경은 복지, 교육, 의료, 주거, 교통 그리고 안전 요소를, 근

〈표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근거한 가족친화마을의 물리적 환경 요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족친화마을의 물리적 환경
구분	구성요소	
안락하고 편리한 거주환경	복지	- 단지 내 이웃과 어울릴 공동시설 및 서비스 - 공동보육시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 노인돌봄·간호 시설 및 서비스
	교육	- 도보로 등교 가능한 초·중·고교 설치
	의료	- 병원, 건강생활을 위한 단지 환경
	주거	- 상점 등 편의시설
	교통	-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연결망
	안전	- 범죄로부터의 안전
경쟁력있는 근로환경	근로	- 마을환경 조성에 따라 마을 내 일자리 창출 - 직장내의 용이한 접근성
	기업	-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쾌적하고 즐거움 여가환경	문화·예술 ·스포츠	- 다양한 가족여가 및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
	경관·환경	- 공원·충분한 녹지공간

출처: 행정자치부(2006)를 참고로 작성

로환경에서는 근로여건 및 기업 요소를, 여가 환경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 경관, 환경 등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가족형’으로서의 가족친화마을은 돌봄네트워드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살기좋은 지역의 구성요소 중 ‘복지’에 해당된다. 안락하고 편리한 거주환경 요소로서 ‘복지’는 가족친화마을의 경우 가족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인적, 물적 자원이 이동되는 자원교환망이다(차성란 a, 1994). 가정생산은 크게 분리가능한 생산(separable household production)과 분리불가능한 생산(inseparable household production)으로 구분된다. 분리가능성은 시장재화나 용역으로의 대체가능성을 의미하며, 분리불가능한 가정생산은 시장상품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가족원들의 생산활동이다. 분리불가능한 생산은 다시 가정내생산과 가정간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숙재, 1996). 가정간생산은 지역주민과의 공동생활 속에서 서로 자녀양육서비스를 교환하거나 정보, 기술, 지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물론 정서적 안정, 책임감, 시민의식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자원이 교환되는 형태이다. 자원교환이 반복을 통해 지속성을 지니게 되면 가정체계를 외부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충시키는 자원교환망으로서 형성되게 된다. 이를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의식이며,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은 가족친화마을 환경의 조성 및 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용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마을 주민 사이의 관계를 촉진케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적, 물적 자원교환을 증진시킴으로써 마을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시설 편의성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거나 가능한 접촉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공용시설이나 서비스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최재순, 이재준(2004;

116-118)의 연구에 의하면 이웃관계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공동체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중요도는 아파트내 공원이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잔디밭 수목, 보행자전용도로 노인정 등. 특히 실외공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직장환경 조성, 둘째, 가족지원을 통한 일과 생활의 조화이다.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취업모에 필요한 맞춤형 육아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육아모형 구축,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가족친화마을환경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육아서비스 및 공동육아를 위한 보육 시설, 노인돌봄 및 간호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 변인에 따라 가족참여가 가능한 주택내 작업공간(부엌 및 식당)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 변인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제 변인이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선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현재 대전시 소재 (5개구, 67개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법에 의한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는 건축전공 대학원생들이 총 20명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에 걸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에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은 설문지 검토시 반영하였으며, 문항수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에 걸쳐 530부를 배부하여 46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총 418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ASW 18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과 응답 분포 및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파트 선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분산분석을 하였다. 제 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값을 산출하였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로 주택내부의 물리적 환경 중 부엌 및 식당의 평면구조에 대한 선호는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족참여가 용이한 평면구조를 포함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엌 및 식당은 주택내 가족원들의 공용공간으로서 공동의 가족생활, 가족원들의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참여 등을 통해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으로 판단하였다. 주택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호로서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은 탁아시설, 스포츠시설, 노인시설, 공동텃밭 등을 포함하여 17개 문항,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은 도보통학, 범죄로부터의 보호,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공동공간 등을 포함하여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문항 작성시 김정순(2002), 이유진(2008)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부엌 및 식당 구조에 관한 문항의 Cronbach α 값이 0.688,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에 관한 문항이 0.869, 가족친화마을환경에 관한 문항이 0.89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변인으로는 응답자의 연령, 취업여부, 가계소득, 자녀수, 첫 자녀연령, 주택소유여부, 주택면적, 거주기간 등을 포함하였다. 주택면적은 시중의 주택시장에서 분양되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45.5%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전업주부/무

직이 46.4%, 판매/서비스직이 13.4%였다. 가계소득은 299만원 이하가 22.7%, 400-499만원이 20.8%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택소유는 78.9%가 자가였으며,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54.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택면적은 32-37평형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가족친화적 아파트 실내 작업공간에 대한 선호

1) 가족친화적 아파트 실내 작업공간 요인 추출

주택내 부엌 및 식당의 구조에 대한 선호로 가정의 가족친화문화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영향 변인을 추출하고자 관련 된 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은 가족참여, 소통·분리 조절, 식생활중시, 공간효율로 명명하였으며, 4개 요인으로 설명된 총 분산은 66.46%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변인에 따라 부엌 및 식당 4개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 및 t-test를 한 결과가 다음의 <표 4>와 같다. 가족참여에 대한 선호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 첫 자녀연령에 따라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418)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30대 이하	90	21.5
	40대	190	45.5
	50대 이상	138	33.0
교육수준	고졸이하	190	45.5
	대졸이상	228	54.5
가족수	3명이하	118	28.2
	4명	204	48.8
	5명이상	96	23.0
첫자녀연령	7세 이하	28	6.7
	8-13세	52	12.4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14-19	85	20.4
	20-25	143	34.2
	26세 이상	67	16.0
	무응답	43	10.3
가족형태	확대가족	75	17.9
	핵가족	343	82.1
직업	전업주부/무직	194	46.4
	대학/대학원생	26	6.2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운전직	30	7.2
	판매/서비스직	56	13.4
	자영업	25	6.0
	사무직	41	9.8
	관리직	7	1.7
전문직	39	9.3	
가계소득	299만원 이하	95	22.7
	300-399만원	81	19.4
	400-499만원	87	20.8
	500-599만원	54	12.9
	600-699만원	35	8.4
700만원 이상	66	15.7	
주택소유관계	자가	330	78.9
	전.월세 및 기타	88	21.1
거주기간	2년미만	70	16.8
	2-4년	122	29.1
	5년이상	226	54.1
주거면적	26평 이하	99	23.7
	27-31평	67	16.0
	32-37평	143	34.2
	38-44	52	12.5
	45평이상	57	13.6

〈표 3〉 부엌 및 식당구조 요인

	성분			
	1 가족참여	2 소통·분리 조절	3 식생활증시	4 공간효율
가족이함께작업가능한 싱크대 개수, 크기확보	.868	.097	.133	.086
가족모두사용가능한 높낮이조절 싱크대, 수납장	.830	.072	.068	-.067
가족모두 가사참여가능한 개방형 부엌	.562	.006	.141	.189
부엌, 거실 구분하는 문 설치	.052	.879	.051	.014
주방 거실 부분분리 반개방형	.077	.811	.117	.012
식탁대신 카운터 설치	.025	.009	.783	-.022
아일랜드형 작업대 추가설치	.211	.193	.765	.071
대면식 주방	.357	.045	.456	.304
식당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109	.015	.060	.965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 변인에 따른 부엌 및 식당구조에 대한 선호

(N =418)

변수	구분	가족참여	소통·분리조절	식생활증시	공간효율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연령	30세 이하	3.89 A	0.07 A	0.10	0.21 A
	40-49세	-0.01 B	0.12 A	0.03	-0.05 B
	50세 이상	0.24 B	-0.21 B	-0.11	-0.07 B
	F 값	11.35***	4.73**	1.49	2.55
첫자녀 연령	13세 이하	0.23 A	-0.03 A B	0.12	-0.02
	14-19세	-0.19 B	0.20 B	-0.12	-0.16
	20세 이상	-0.06 B	-0.07 A	-0.02	0.07
	F 값	5.07**	2.28	1.53	1.66
가족수	3명이하	0.05	-0.06	-0.02	0.11
	4명	-0.04	-0.03	-0.00	-0.04
	5명이상	0.02	0.13	0.02	-0.06
	F 값	0.27	1.11	0.04	1.04
가족형태	한부모	0.04	0.31 A B	-0.50 A	0.35
	부부	0.03	-0.03 A B	0.00 A B	0.02
	부부+부모 1인	-0.13	-0.18 A	0.12 B	-0.12
	부부+부, 모	-0.22	0.46 B	-0.00 A B	-0.15
	F 값	0.82	2.99*	1.23	0.94
교육수준	고졸이하	-0.06	-0.09	-0.02	-0.00
	대졸이상	0.05	0.08	0.10	0.01
	t 값	1.13	1.80	0.27	0.13
취업여부	비취업	-0.01	0.01	0.05	-0.06
	취업	0.02	-0.01	-0.05	0.07
	t 값	0.29	0.25	1.06	1.28
가계 소득	299만원 이하	0.05	0.01 A B	-0.01	0.22 A
	300-399	0.06	-0.13 A	0.01	0.11 A
	400-499만원	-0.03	0.19 B	-0.00	0.01 A B
	500만원 이상	-0.04	-0.04 A B	0.00	-0.20 B
	F 값	0.29	1.56	0.00	3.91**
주택소유	자가	-0.02	-0.01	-0.02	-0.03
	비자가	0.08	0.02	0.07	0.11
	t 값	0.76	0.27	0.67	1.12
주택면적	16-19평	-0.00	0.12	0.09 A B	0.16 A
	20-25평	0.09	-0.17	0.14 A B	0.10 A
	26-29평	0.21	-0.35	-0.38 A	0.07 A
	30-35평	-0.03	0.16	-0.04 A B	0.12 A
	36-41평	0.11	0.01	0.09 A B	-0.31 A B
	42-48평	-0.24	-0.16	-0.22 A	-0.11 A B
	49-55평	-0.08	-0.37	0.38 B	-0.59 B
	F 값	0.79	2.13*	1.66	2.75*
거주기간	2년이하	0.08	-0.15	-0.08	0.14
	3-4년	-0.06	0.02	0.07	0.04
	5년이상	0.01	0.03	-0.01	-0.07
	F 값	0.48	0.92	0.56	1.33

* p<.05, ** p<.01, *** p<.001,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세 이하 집단이 40대, 50대 집단에 비해 가족참여 구조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첫 자녀연령은 13세 이하 집단이 14-19세, 20세 이상 집단에 비해 가족참여 구조에 대해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첫 자녀가 중학교 연령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가족참여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통·분리조절이 가능한 부엌 및 식당구조에 대한 선호는 응답자의 연령, 가족형태, 주택면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30세 이하집단, 40대집단은 50세 이상 집단에 비해 소통·분리조절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40대 이하의 집단은 부엌 및 식당구조에 있어 가족원간 또는 가족과 외부방문객 사이의 소통과 분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는데 비해 50대 이상 집단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주부들이 개인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부부와 부모 중 1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소통·분리 조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았으며, 부부와 부모 모두 함께 생활하는 3세대 가족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주택면적의 경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었으나 사후검증에서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생활중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효율은 가계소득과 주택면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은 499만원 이하의 모든 집단에 비해 부엌 및 식당구조에 있어 공간효율성 고려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택면적은 아파트 분양면적 35평

〈표 5〉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선호 요인

	성 분			
	공동작업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보육시설	공동편의 서비스시설
공동세탁실공동	.877	-.072	.105	.134
공동빨래건조장	.869	-.084	.055	.211
공동근무실	.798	.214	.017	.037
공동방문객숙소 및 접객시설	.743	.160	.065	.158
공동세차공간	.696	.368	-.136	-.471
공동텃밭	.596	.292	.315	-.067
공동식당	.537	.314	.165	.460
안내공간	.152	.787	.104	.094
공동작업실	.317	.694	.189	.124
실내체육시설	-.058	.515	.250	-.048
노인시설	.023	.502	.208	-.177
집회,행사실	.245	.490	.393	.213
실내어린이놀이터	.061	.084	.742	-.005
탁아소(놀이방)	.037	.257	.740	-.114
방과후 공부방	.242	.320	.678	.092
경조사 손님접대공간	.387	.483	-.028	.576
수시배출가능한쓰레기분리수거	-.107	.162	.298	-.343

이하의 모든 집단이 36평 이상의 모든 집단에 비해 공간효율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과 주택면적 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유추해본다면, 두 변인의 영향력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35평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거주면적으로 인해 부엌과 식당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에 대한 선호

1)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 요인 추출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에 대한 선호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문화에 대한 선호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영향 변인을 추출하고자 관련된 17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표 5>) 공동작업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보육시설, 공동편의서비스시설로 명명한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설명된 총 분산은 59.22%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 변인에 따른 공동시설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6>) 공동작업시설은 연령 및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0세 이상 집단에 비해 30세 이하, 40-49세 집단이, 그리고 가계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에 비해 499만원 이하 모든 집단들이 공동작업시설에 대해 더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주민들이 함께 작업을 하거나 개인적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보육시설은 응답자 연령이 30세 이하인 집단과 50세 이상인 집단이 40대 집단에 비해 높은 선호를 보였다. 또한 주택면적이 16-19평, 20-25평인 집단, 그리고 30-35평, 36-41평, 42-48평, 49-55평인 집단이 26-29평인 집단에 비해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연령과 주택면적

이 낮은 집단은 자녀의 연령이 낮아 공동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연령과 주택면적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집단에서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손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요구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첫 자녀연령이 13세 이하인 집단이 14-19세, 20세 이상인 집단에 비해 공동보육시설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였다. 공동편의서비스시설은 가족수 3명이하인 집단이 4명, 5명이상인 집단에 비해 선호가 높았으며, 주택면적이 48평 이하인 모든 집단이 49-55평인 집단에 비해, 그리고 거주기간 3-4년 집단이 2년 이하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 영향 변인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선호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표 7>).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중 도보등교가 가능한 학교, 보육시설, 병원, 학교, 상점 등 편의시설, 범퍼안전, 녹지공간 등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거환경으로서 주민들이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물리적 환경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기본적 거주환경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비해 일자리, 이웃과의 공동공간, 문화생활, 직장접근성, 스포츠시설, 노인돌봄시설 등의 요인들은 기본적 거주환경요인과 비교할 때 차 순위의 조건으로 여겨진다. 특성상으로 보면 공동생활공간, 문화, 스포츠, 노인돌봄 등 지역사회내 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조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관계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2개의 요인으로 설명된 총 분산은 62.89%였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변인에 따른 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에 대한 선호

변수	구분	공동작업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보육시설	공동편의 서비스시설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평균(DMR)
연령	30세 이하	0.19 A	-0.13	0.20 A	-0.03
	40-49세	0.06 A	0.05	-0.16 B	0.06
	50세이상	-0.21 B	0.01	0.09 A	-0.06
	F 값	5.06**	0.99	4.86**	0.60
첫자녀 연령	13세 이하	0.09 A B	-0.04	0.25 A	0.05
	14-19세	0.19 A	0.16	-0.16 B	0.10
	20세이상	-0.13 B	-0.04	-0.09 B	-0.07
	F 값	3.81*	1.38	5.88**	1.08
가족수	3명이하	0.02	0.02	0.12	0.22 A
	4명	-0.05	-0.03	-0.08	-0.06 B
	5명이상	0.09	0.04	0.02	-0.15 B
	F 값	0.66	0.21	1.54	4.48*
부모자녀세 대구성	한부모	0.24	-0.53 A	0.14	0.30
	부부	-0.01	0.01 A B	-0.02	-0.01
	부부+부모 1인	-0.18	0.00 A B	0.09	-0.03
	부부+부, 모	0.26	0.10 B	0.06	0.02
	F 값	1.34	1.23	0.27	0.38
교육수준	고졸이하	-0.06	-0.09	-0.02	-0.01
	대졸이상	0.05	0.08	0.01	0.01
	t 값	1.13	1.80	0.27	0.13
취업여부	비취업	-0.02	0.08	0.07	0.01
	취업	0.02	-0.09	-0.08	-0.01
	t 값	0.46	1.81	1.55	0.19
가계소득	299만원 이하	0.10 A	0.00	0.06	0.18
	300-399	0.17 A	-0.04	-0.01	-0.09
	400-499만원	0.14 A	0.04	-0.16	-0.01
	500만원 이상	-0.23 B	-0.00	0.06	-0.06
	F 값	4.35**	0.11	1.09	1.46
주택소유	자가	-0.04	0.01	0.01	0.00
	비자가	0.17	-0.04	-0.04	-0.01
	t 값	1.88	0.47	0.37	0.07
주택면적	16-19평	0.26 A	-0.06	0.36 A	0.30 A
	20-25평	0.01 A B	-0.04	0.06 A B	0.03 A
	26-29평	0.21 A B	0.01	-0.40 B	0.29 A
	30-35평	0.05 A B	0.05	-0.17 A B	-0.03 A
	36-41평	-0.06 A B	-0.15	0.05 A B	0.17 A
	42-48평	-0.21 A B	0.10	0.21 A	0.09 A
	49-55평	-0.32 B	0.07	0.26 A	-0.74 B
	F 값	1.19	0.36	2.57*	2.80*
거주기간	2년이하	-0.04	0.10	-0.11	-0.22 A
	3-4년	0.17	0.01	0.15	0.19 B
	5년이상	-0.08	-0.04	-0.05	-0.04 A B
	F 값	2.39	0.55	2.07	4.14*

* p<.05, ** p<.01, *** p<.001,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7〉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 요인 추출

	성 분	
	관계환경 요인	기본적 거주환경 요인
주변 일자리 기회	.867	.147
단지내 이웃과 어울릴 공동공간,서비스	.850	.116
문화생활	.715	.312
직장출근용이	.662	.355
스포츠시설 이용	.620	.443
노인돌봄 간호시설	.564	.487
도보로 등교가능한 초중고교	.176	.832
보육시설	.236	.802
병원,학교,상점 등 시설	.251	.765
범죄로부터안전	.190	.686
공원과 녹지공간	.323	.528

변인들이 가족친화환경 선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의 <표 8>과 같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 값을 살펴본 결과 가족수가 문제되어 회귀분석에서는 가족수 대신 자녀수 변인을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가족친화마을의 관계환경 요인에 대한 선호는 문화체육시설($\beta=0.308, p<.001$), 공동보육시설($\beta=0.253, p<.001$), 공동편의서비스시설($\beta=0.173, p<.001$), 가족참여($\beta=0.164, p<.001$), 공동작업시설($\beta=0.149, p<.01$), 교육수준($\beta=-0.140, p<.01$), 거주기간($\beta=-0.099, p<.05$)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31.2%($F=10.68, p<.001$)였다. 즉 가족친화마을의 관계환경 요인에 대한 선호는 공동시설 요인 중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공동편의서비스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부엌 및 식당구조 요인 중 가족참여 구조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공동작업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친화마을의 기본적 거주환경요인에 대한 선호는 공동보육시설($\beta=0.271, p<.001$), 문화체육시설($\beta=0.169, p<.001$), 첫 자녀연령($\beta=-0.167, p<.01$), 자녀수($\beta=0.144, p<.05$), 교육수준($\beta=0.101, p<.05$)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제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18.1%($F=5.20, p<.001$)였다. 가족친화마을의 기본환경에 대한 선호는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첫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첫 자녀연령이 낮거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거주환경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친화마을의 관계환경 요인과 기본적 거주환경 요인을 합한 전체 마을환경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한 결과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선호는 공동보육시설($\beta=0.367, p<$

.001), 문화체육시설($\beta = 0.346, p < .001$), 첫 자녀연령($\beta = -0.160, p < .01$), 자녀수($\beta = 0.142, p < .001$), 가족참여요인($\beta = 0.116, p < .01$), 주택소유여부($\beta = -0.101, p < .05$), 공동작업시설 요인($\beta = 0.091, p < .05$), 식생활증시 요인($\beta = 0.084,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36.7% ($F = 13.62, p < .001$)이었다. 즉 가족친화마을환경 선호는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첫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참여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작업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식생활증시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육아품앗이, 가족품앗이 사업이 이제는 전국 모든 센터의 공통필수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친화문화조성

〈표 8〉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가족친화마을의 관계환경		가족친화마을의 기본적 거주환경		가족친화마을환경 전체	
	b	β	b	β	b	β
상수	1.047		-0.126		51.072	
가족참여	0.164	0.164***	-0.012	-0.012	0.724	0.116**
소통·분리조절	0.028	0.028	-0.085	-0.085	-0.240	-0.039
식생활증시	0.080	0.080	0.030	0.030	0.524	0.084*
공간효율	-0.033	-0.033	-0.078	-0.078	-0.473	-0.076
공동작업	0.149	0.149**	-0.033	-0.033	0.565	0.091*
문화체육시설	0.308	0.308***	0.169	0.169***	2.150	0.346***
공동보육	0.253	0.253***	0.271	0.271***	2.282	0.367***
공동서비스	0.173	0.173***	-0.070	-0.070	0.494	0.079
교육수준	-0.194	-0.140**	0.141	0.101*	-0.328	-0.038
가계소득	-0.009	-0.019	-0.017	-0.039	-0.107	-0.038
주부취업여부	-0.035	-0.017	0.126	0.063	0.353	0.028
자녀수	0.075	0.060	0.178	0.144*	1.096	0.142**
첫자녀연령	-0.007	-0.066	-0.018	-0.167**	-0.108	-0.160**
확대가족	-0.041	-0.016	-0.017	-0.007	-0.204	-0.013
주택소유여부	-0.152	-0.062	-0.194	-0.079	-1.541	-0.101*
주택면적	0.002	0.020	-0.011	-0.099	-0.030	-0.045
거주기간	-0.075	-0.099*	0.044	0.058	-0.149	-0.032
R ²	0.312		0.181		0.367	
Adjusted-R ²	0.283		0.146		0.340	
F 값	10.68***		5.20***		13.62***	

* p < .05, ** p < .01, *** p < .001

이라는 가족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후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을 하나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센터의 담당자들은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운영에 대한 시작단계에서 사업의 대상자 선정, 접근방법, 적용 프로그램 등, 방법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 참여에 우호적 가능성을 지닌 주민 특성, 가족친화마을환경에서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서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가족친화마을환경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시 소재 아파트 거주 주부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원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부역 및 식당구조로서 ‘가족참여’에 대한 선호는 응답자 연령 30세 이하, 첫 자녀 연령 13세 이하인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참여’에 대한 선호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하위영역 중 ‘관계환경’에 대한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연령의 가족원들은 일차적인 사업대상자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동시설 중 공동작업시설은 응답자 연령이 30, 40대인 경우, 첫자녀연령은 14-19세인 집단, 가계소득이 499만원이하인 모든 집단에서 선호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거주, 근로, 여가 세 구성요소 중 근로환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동작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결성,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마을만들기 대상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하여, 공동작업시설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혼기와 50대 이상에서 높은 여성취업률을 보이는 M자형 취업률 구조를 고려할 때, 30, 40대 연령은 자녀교육으로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시기일 수 있어, 거주지역내 가계소득을 위한 공동작업시설에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계소득 기준 499만원 이하인 모든 집단에서 공동작업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은 아파트단지내 공동작업시설 계획을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공동보육시설은 응답자 연령 30세 이하,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그리고 첫 자녀연령은 13세 이하인 경우에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자녀양육시기에 해당하는 30세 이하 집단의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50세 이상인 경우는 손자녀보육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추후의 연구에서 이들 연령집단의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관계환경’에 대한 선호는 문화체육시설, 공동보육시설, 공동작업시설 등에 대한 선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족돌봄을 주민 스스로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공동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인적, 물적 자원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설치해야 할 시설의 종류에 대한 강제규정 없이 설치규모 ($50m^2 + (\text{세대수} - 300) \times 0.1m^2$ 이상) 만 제시되어 있다(대한주택공사, 1992). 2000-2007년 사이에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수도권 아파트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최혜진, 2008)에 의하면, 실제 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은 가족친화마을의 ‘관계환경’과 거리가 멀다. 보육시설은 유치원, 어린이놀이방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동보육시설은 단 한 사례도 없으며, 여가시설은 주민취미실, 영화상영실, 노래교실, 강당 및 연회장 등이 전부였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을 위해서는 공동보육시설, 공동작업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자원교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관계환경’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참여’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선호가 높았으며, 가족친화마을환경 전체적으로 볼 때, 첫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사업의 담당자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주민들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 마을환경조성사업의 활동가로 참여시키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족친화마을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공동보육시설,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공동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을 관계환경과 기본적인 거주환경으로 구분했을 때, 두 영역 모두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가

족친화마을환경의 하위 영역 중 관계환경 측면에서 보면,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이는 이웃과의 인적, 물적 자원교환망으로 기능하여, 주민 네트워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의 또다른 하위 영역 기본적 주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의 설치는 살기좋은마을의 세가지 구성요소, 즉 거주, 근로, 여가 중 거주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 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 지원기관에서는 공동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촉발되고, 계기를 제공하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거주기간이 짧은, 그리고 주택내 부엌 및 식당에서의 가사노동에 ‘가족참여적’인 가족원들을 일차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자로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친화마을환경의 관계환경에 대해 높은 선호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마을만들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주민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이웃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동공간과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것을 본격적인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계 또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첫 자녀연령이 낮은 집단은 자녀보육이라는 주민공동의 요구를 지닌 집단이므로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적극적 참여집단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

시하고 있는 육아품앗이 사업은 첫 자녀연령이 낮은 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품앗이를 통해 형성된 주민과 기관 담당자와의 신뢰적 관계는 이후 가족친화마을 환경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활동가를 발굴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담당자는 주민들간의 육아품 교환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연식이, 아토피와 같은 질병, 장애아의 성장 발달, 대안적 교육방식 등 다양하고 좀 더 구체적인 자녀보육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첫 자녀 연령이 낮은 부모들을 가족친화마을 사업에 참여시키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자녀수가 적거나 첫 자녀연령이 높은 경우,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족들이 가족친화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인식, 가족친화마을의 핵심 요소인 공동체성을 신장시킬 방법론에 대해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인남(2004). 희망을 나누며 하나되는 우리 동네 38: 서울시 관악구 입대아파트 마을만들기 사례. 국토연구원. 국토 273, 119-123.
- 2) 김경순(2002). 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본 공동주거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중산층 주부의 가정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4) 김선미·김소영(2010). 살기좋은 마을의 거점에 관한 사례연구: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대표회의의 가족친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73-96.
- 5) 문숙재(1996). 가정생산. 서울:신광출판사.
- 6) 박은철(2011).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 정책리포트 87, 1-18.
- 7) 신중진·송승현(2010).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 연구-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1), 29-306.
- 8) 신중진·신효진(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연구-독산 3동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2), 109-120.
- 9) 신효진(20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합의형성을 위한 프로세스와 워크숍의 수법. 도시와 빈곤 83, 34-53.
- 10)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11) 이유진(2008). 가족친화형 유비쿼터스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 맞벌이 주부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지혜·이명훈·전병혜(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4(1), 73-85.
- 13) 조연경·김정민(2009).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수법에 관한 연구-어린이 참여 디자인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4), 205-216.
- 14) 차성란(1994 a). 가정생산의 분리가능성 의식과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활활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20-232.
- 15) _____(2010 b).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16) _____(2010 c). 주민주도적인 가족친화마을

- 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77-100.
- 17) 최재순·이재준(2004).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2호 111-126.
- 18) 최혜진(2008).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연구: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연구. 행정자치부.
- 20)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투 고 일 : 2011년 3월 2일
 - 심 사 일 : 2011년 4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5월 19일